



[수기]

■ 허성옥

계란 두알

젊어서는 희망 속에서 살고 늙으면 추억 속에서 산다고 나도 곧 80을 바라보는 로인이 되니 앉으나 서나 지나간 일들을 회억하게 된다.

어제도 우리 아빠의 근처에서 젊은이들이 '5.4' 청년절 기념 활동을 한다고 온밤 번쩍번쩍 등불과 등두하며 노래하고 떠드는데 어느 사이 60년전 중학교 2학년 때 '5.4' 청년절을 기념하여 조직한 전 시 마라톤 시합에 참가했던 일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난 어려서 키도 작고 몸도 약했다. 소학교를 졸업할 때 체중이 25키로그램도 안되어 진짜 어른들의 말을 믿다면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갈 듯한 체구였다. 그러나 타고난 재주였던지 겨울이면 스케이트, 여름이면 육상 등 운동을 특별히 잘하여 선생님의 귀여움을 받곤 했다.

초중 2학년 때의 '5.4' 청년절 날이었다. 그날 목단강시 중심인 로동자문화회 광장에서 처음으로 규모가 제일 큰 대중성 마라톤경기를 조직하였는데 연령대에 관계없이 중학생으로부터 사회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무릇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다 참가하여 진짜 누가 운동원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

었다.

그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집에 입쌀이 없어 밥을 짓지 못해 그 전날 저녁 끓인 강냉이죽 한 공기를 대충 먹고 학교에 집합하여 친구들과 같이 경기 장소로 갔다. 가보니 벌써 많은 운동원들이 모여서 완전 가관이였다. 목단강시 전 시에서 다 모였으니 그 운동원 행렬이 얼마나 굉장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로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열기 충천하여 줄지어 섰는데 모르긴 하겠지만 아마 겨우 137센치 밖에 안되는 나의 키가 제일 작았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사업일군이 나를 미심쩍게 바라보며 행렬 뒤 끝머리에 세워주는 것이었다. 속으로 못마땅했지만 순응해야 했다.

이윽고 예정된 시간이 되자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그 방대한 운동원 대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북의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아 운동하기에 딱 적합하였다. 마라톤경기 거리는 모두 6키로미터로 쉽지 않았다. 모 두 다 숨이 차서 헐떡헐떡하며 약 절반을 뛰었나 싶을 때 벌써 많은 사람들이 퇴장하면서 행렬에는 운동원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끝까지 견지한 이들은 먼저 북산기슭에 도착하여 메시

지 하나 받아들고 다시 스타트 장소이자 종점인 로동자문화회 광장까지 왔다.

키가 제일 작아 유치원생 같은 내가 몇등 하였는가요!? 난 자신도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성적을 따냈다. 시상식에서 "목단강조선족중학교 허성옥 4등"이라고 발표하였을 때 관중석에서는 열렬한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내가 상으로 마크와 필기장을 타고 내려오니 어머니가 막내동생을 등에 업은 채 삶은 계란 두개를 내 손에 쥐여주시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난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혼자인 줄로 알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정작 어머니가 동생을 업고 내 앞에 나타나니 진짜 너무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나는 심정이였다. 솔직히 지금 같으면 자식들이 이런 경험에 참가하면 온 집안이 들썩이며 응원하느라 란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여 부모들이 언제 자식들의 이런 저런 일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더구나 내가 6남매중 맏이었으니 그 어린 동생들은 더구나 보살핌을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일년 가도 구경조차 못하는 계란을 들고 나오셨으

니 나의 마음은 기쁜 나머지 똥똥 뜨는 것만 같았다.

그날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큰 운동 대회에 참가하면서 진수성찬은 아니더라도 겨우 전날 저녁에 써어놓은 강냉이죽을 먹고 시합에 참가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한다. 생각다 못해 어머니는 손에 현찰이 없어 친구한테서 먼저 돈을 빌려 한동네 닭을 키우는 집에 가서 계란 다섯알을 사다가 삶아 동생들에게 세알을 남겨두고 나한테 두알을 가져왔던 것이다.

계란 두알을 건네주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핑 고인 것을 나는 보았다. 나도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어머니는 나의 상장과 마크를 받아 들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큰 상 받았구나! 장하다 우리 딸! 이제라도 이 계란 먹어..." 하고 말씀하시었다.

가련한 천하의 부모 마음 어떻게 말 한마디로 다 표현하라! 자신이 먹고 입지 못해도 자식들에게는 무엇이든 해주고 챙겨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다! 사랑의 눈물이 슬베인, 어머니가 넘겨주던 계란 두알은 영원히 나의 머리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

시조

■ 리명자

려 로 (외 5 수)

한치 앞 알 수 없는
풀잎의 이슬이라

바람이 불고 가면
눈물로 떠나는데

이왕에
한번 가는 길
뿌리 곁에 슴미오

고목

해와 달 긴긴 세월
푸르고 누르다가

키우고 버린 마음
상처가 웅 되는데

우거진
가슴 언저리
새가 동지 틀었소

길

발끝이 한데 모여
한갈래 길이 나고

함께한 길 우에는
사연이 넘쳐나오

그곳에
답은 이야기
울고 웃고 하더라

삶

인생사 별거더냐
거기서 거긴기라

머문 듯 가는 세월
날 가는 줄 몰랐는데

어화라
청풍명월도
들락날락하더라

뜬 구름

떠돌이 생이로서
정처가 없소마는

좋은 연 만나며는
나도야 꽃이 되리

바람아
밀지를 말아
여기 잠간 정들게

겨울 끝자락

정들은 자리라서
또 한번 주저앉소

립춘이 쓸어낼가
숨어서 옛보는데

해살이
어서 떠나라
등 떠밀어 보내오

[수필]

■ 김경희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

오늘은 왜서인지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 떠올리고 싶다. 좋아하는 단어들 떠올리며 단감이 교차된다.

나는 '만남'이란 단어를 좋아한다. 만남이 있어 배움이 있고 만남이 있어 사랑이 있고 만남이 있어 이해와 관용이 있다. 만남 하나하나가 내 삶에 소중한 것이다. 금방 태어나서는 가족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가족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그 사랑을 작은 가슴에 많이 저장했다. 그래서 사랑의 결핍을 느끼지 않고 바르게 씩씩하게 자랐다. 학교에 입학해서는 선생님을 만나고 동학지를 배우고 동학을 만나 우정을 배웠다. 뿐만 아니라 존경과 사랑, 협동, 경쟁을 배웠다. 학교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아서 학생들을 만나 지식을 가르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배우고 몸이 익혀졌다. 십대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나의 하루는 활기와 생기와 즐거움으로 충만되었다.

천차만별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가끔은 갈등하고 미움과 증오도 있었지만 사랑과 이해, 관용이란 단어 덕분에 갈등과 미움과 증오는 봄눈 녹듯 사라졌다. 비운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정은 더 깊어졌으며 내 삶은 더 성장하고 단단해졌다.

나는 책과의 만남을 통해 지식과 삶의 지혜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책은 나에게 소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였다. 책 속의 인물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내 앞에 다가가 자기의 삶의 이야기와 생각과 느낌을 들려주었다. 나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책과 만나면 나는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다.

만남 하나하나가 내 삶을 지탱해주

고 만남 하나하나가 내 삶에 온기를 더해주고 만남 하나하나가 내 삶에 보다 밝은 색깔을 올려주었다. 수많은 만남은 '우리'를 만들어주었다.

함께하는 세상에서 나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좋아했다. '우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문친 힘이 샘 솟듯했다. 여럿이 함께여서 그 힘이 무궁무진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다는 느낌에 더는 외롭지 않고 위안이 되어주었다. "구두쟁이 셋이면 제갈량보다 낫다"고 '우리'여서 그 어떤 곤난도 두렵지 않고 '우리'여서 먼길도 손에 손잡고 걸어갈 수 있었다. '우리'여서 슬픔은 반으로 줄어든다고 기쁨은 배로 커졌다.

'우리'가 빼껴거리지 않고 온당하게 오래동안 조화롭고 평화롭고 평온하게 발전하려면 또 필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단어들을 너무 좋아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필요한 '나란히'라는 단어를 오래동안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한다. 불평등하게 태어나서 불평등하게 살아가면서 나란히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격변하는 시대에 경쟁은 불가피적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경쟁 속에서도 나는 나란히 살아가는 삶을 많이 추구했다. 그래서 신입일 때에는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욕심에 부풀어 앞만 보고 숨차게 달렸고 세월이 흘러 선배가 되었을 때에는 나의 노루 꼬리만한 경험을 후배들과 사십없이 공유하며 어깨 나란히 걸었다. 이래서 그 긴 30여년을 그 누구와도 갈등을 만들지 않고 너 좋고 나 좋게 달쳐

럼 등글등글게 잘 지내오면서 편하고 즐겁고 행복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나란히'가 필요하다. 둘이 한방향을 보면서 어깨 나란히 걸어갈 때 부부는 대화거리가 많아지고 대화가 더욱 편하고 신난다. 거리를 가다가 가끔 늙은 부부가 손에 손잡고 나란히 걸어가며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뒤모습을 보면 참 다정하다는 느낌과 함께 우리 부부도 그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세월이 흘러 형제자매들의 생활에도 빈부의 차이가 있는데 앞에서 이골고 뒤에서 밀어주며 나란히 할상할 때 혈육의 정이 더욱 끈끈해진다. 있어도 있는 티를 내지 않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썩씩 도와주는 것이 혈육의 정이다.

'우리'를 살아가면서 나는 '진심'이란 단어를 빼놓을 수 없다. 거짓의 반대인 진심은 참으로 아름답고 따뜻하다. 진심인 친구가 곁에 여럿이 되어 내 삶이 외롭지 않고 항상 행복하다. 일이 있으면 낮이고 밤이고 망설임없이 전화를 할 수 있는 친구, 고민도 아무런 걱정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내 허물도 꺼리낌없이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진심인 친구가 곁에 있어 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모든 것을 털어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가 별로 쌓이지 않는다.

나는 직장에서 '최선'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했다. 나는 본인이 최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최선을 많이 부르짖었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별명을 달아 주었겠는가! 최선했기에 교원사업이

즐거웠고 즐거웠기에 행복했다. 최선을 하는 하루하루는 충실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었다. 최선을 살 때는 후회가 적었다. 최선이 몸에 밴 나는 재직일 때 학생들에게 작문을 열심히 지도한 경험으로 정년퇴직한 지금 작품을 열심히 쓰고 있으며 이런 고상한 취미생활이 있기에 제2인생이 외롭지 않고 하루하루가 충실하다. 보다 재미있고 생명력 있는 글을 쓰려고 최선하기에 날에 날따라 조금씩 조금씩 향상하는 내 글을 만난다. 그 성취감이 주는 기쁨은 단어가 가난한 나로서는 형언할 수 없다.

나는 '그리움'이란 단어를 오래동안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며 래일도 좋아할 것이다. 누구를 그리워하고 누구의 그리움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설레는 일인가! 이십대에는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선배들의 궁정과 칭찬을 받는 멋진 모습을 그리워했다. 30대에는 일선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쫓 빛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워했다. 40대에는 일선에서 중견인이 되어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모습을 그리워했다. 50대에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그리워하였으며 내가 떠난 일터에서 후배들이 내 이름 석자를 떠올리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해주기를 그리워하기도 했다. 60대에 들어서니 우아하고 세련된 삶을 그리워한다. 비록 그리움들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왔지만 이런 아름다운 그리움들을 함께했기에 내 삶이 무미건조하지 않고 흥미진진했다. 그리움들은 그동안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한몫 톡톡히 했다.

'만남, 우리, 나란히, 진심, 최선, 그리움'이란 아름다운 단어를 좋아했기에 나는 이 세상을 좀더 따뜻하게, 좀더 충만하게, 좀더 인간답게 살지 않았나 생각된다.

나는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단어들과 함께 나만의 삶의 이야기를 엮어가면서 주어진 삶에 아름다운 색깔을 한다.

[수필]

■맹영수

비빔밥

비빔밥은 이름 그대로 비벼먹도록 한 음식이다.

비빔밥은 식지 않은 고슬고슬한 흰밥에 볶은 소고기나 육회가 얹히고 고사리, 콩나물, 시금치 등 거의 모든 채진 나물 종류가 얹히는 외에 달걀구이와 참기름 그리고 고추장이 얹혀져서 만들어진다. 비빔밥은 평양랭면 등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음식으로 꼽혔는데 거기엔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칼리움, 철, 그리고 비타민 A, B, C...가 들어 있어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외에 달걀구이와 참기름 그리고 고추장이 얹혀져서 만들어진다. 비빔밥은 평양랭면 등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음식으로 꼽혔는데 거기엔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칼리움, 철, 그리고 비타민 A, B, C...가 들어 있어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외에 달걀구이와 참기름 그리고 고추장이 얹혀져서 만들어진다. 비빔밥은 평양랭면 등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음식으로 꼽혔는데 거기엔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칼리움, 철, 그리고 비타민 A, B, C...가 들어 있어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외에 달걀구이와 참기름 그리고 고추장이 얹혀져서 만들어진다.

비빔밥은 한쪽들의 물만두나 훈두처럼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누구나 하기 쉽고 먹기 좋은 값싼 서민 음식이다. 하지만 비빔밥은 그 독특한 맛으로 해서 기타 여러 민족과 외국사람들에게도 널리 대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나도 친구 혹은 손님이 오면 한달에 한번쯤은 비빔밥집을 찾곤 한다.

비빔밥을 먹다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도 비빔밥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곧잘 들곤 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 흙뽕으로 태어나고 스스로 울음을 운다. 하지만 크면서 부모와 형제, 친구, 그리고 사회상의 각종 부류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안된다. 지구라는 천체에는 각자 부동한 국가, 부동한 지역, 부동한 민족, 부동한 풍습과 신앙...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신앙과 신앙 사이는 열기설기 수많은 단 한자락도 아니 갖고 작은 나라를 차별시키고 '큰사람'이 '작은 사람'을 차별시키고 큰 종교가 작은 종교를 차별시키는 현상을 도처에서 볼 수가 있다. 우

리는 평화를 갈망하고 안병과 친선, 친목을 바라지만 서로가 개잡은 포수처럼 우줄럭거리릴 때가 종종 있다. 여하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자기의 관점이나 생각 등을 강요하다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는 불신과 반목으로 번져 전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암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만큼 한 나라가 발전하고 사람 사는 세상에 평화와 친선, 화목이 깃들려면 서로가 소 닭보듯 하기보단 비빔밥처럼 잘 버무려지고 잘 어울려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말에 독불장군은 외롭고 외딴섬은 무섭고 홀로 걷는 길은 멀다는 말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아무튼 세상은 동떨어진 세상이 아니고 세상에 영원한 강자가 없다. 살다 보면 누구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

'나'를 떠나서 우리라는 존재가 완정할 수가 없고 우리를 떠나서 '나'란 존재도 완정한 존재라 할 수 없다... 그만큼 삶의 길에서 서로가 아픔을 감내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배풀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안정되고 평화롭고 화기로운 그야말로 살맛이 나지 않겠는가?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비빔밥은 '엄마의 밥'이고 '누나의 밥'이고 '안해의 밥'이고 '한 민족의 밥'이다. 비빔밥에는 삶의 지혜가 깃들어있고 나름대로 사랑의 함의가 담겨져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라도 한번쯤 비빔밥을 맛보라고 권하고 싶다. 비빔밥을 먹다 보면 엄마의 손맛같은 사랑과 배려가 가슴에 닿으면서 적어도 걸어온 삶을 한번쯤은 더 돌아보게 되고 깊은 상념에 잠기지 않을까? 정녕 내 가슴의 사랑의 깊이는 어디쯤이나 될까?...

[시]

■ 김승중

새 벽 (외 1 수)

그렇게도 그렇게도
수천수만자락 성스럽게
성스러이 펼쳐주셨소이다...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은
자신을 위한 하늘
단 한자락도 아니 갖고
아니 갖고 가셨소이다...

아-버-님-

자신을 위한 종을
단 한번도 아니 치시고
아니 치시고 가셨소이다...

하늘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은
남들을 위한 하늘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은
남들을 위한 종을
그렇게도 그렇게도
수천만번 수천만번
쳐주셨소이다...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은